

실속 재테크

금융 증시·펀드 환매 어떻게

섬머앨리 기대 상승 여력 충분 중·장기 투자라면 지속 보유를

최근 전고점을 돌파한 국내 증시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과 경기지표 호전으로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며 파죽지세로 내달리고 있다. 전고점을 돌파한 증시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이참에 주식형 펀드를 환매(인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주은행 PB센터 상무부 정순자부장과 우리투자증권 중서부본부 김경신차장으로부터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내 증시 전망과 펀드 환매 여부를 알아본다.



〈정순자부장〉 〈김경신 차장〉

글로벌 증시 변화·수급여건 신중히 관찰

목표 수익률 감안 부분 환매 고려해 볼만

◇섬머앨리 기대되지만 단기매매 필요=이들은 수급상태가 양호한데다 기업 실적의 증시의 촉매제로 작용해 추가 상승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2분기 이후 기업실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지수가 한차례 밀릴 수도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권했다.

김경신 차장은 양호한 글로벌 증시 흐름과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개선에 따른 지속적인 외국인 의 현물 매수와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최근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섬머앨리가 이어진다면 기술적으로 코스피지수 1,560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업들의 실적 발

표가 마무리되는 시점 및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단기 매매전략이 필요하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글로벌 증시 변화와 수급 여건을 신중히 관찰할 후 가져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정순자 부장은 “절대적인 수 준만 놓고 본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순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는 이미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유동성 역시 풍부한데다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개선되고 있으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장은 그러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도,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만큼 순환매를 전제로 지금까지 소외됐던 중소형주와

낙폭 과대주에 대한 단기 매매전략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펀드는 필요자금만 부분 환매=증시 급등으로 원금을 회복한 펀드가 늘어나면서 환매 욕구도 커지고 있다.

약세장일때는 원금만 회복하면 곧바로 환매하겠다는 투자자들도 코스피지수가 1,500을 눈앞에 두고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아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 부장은 펀드 환매에 정답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투자한 자산의 자금목적과 운용기간, 목표 수익률 등을 감안해 부분 환매를 고려해 볼만 하다고 권했다.

김 차장은 자금의 필요성이 펀드 환매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필요자금이 발생했다면 과감히 환매해야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라면 지속적인 보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청바지 입은 노트북

LG전자는 21일 미니노트북에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의 디자인을 적용한 신제품 ‘엑스노트 미니 리바이스 스페셜 에디션’을 오는 2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기존 아이스크림 미니노트북(X120 시리즈) 상판에 리바이스 청바지 디자인과 로고를 넣었으며, 테두리 라인에 리바이스 특유의 붉은 색상을 적용했다.

LG전자는 21일 미니노트북에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의 디자인을 적용한 신제품 ‘엑스노트 미니 리바이스 스페셜 에디션’을 오는 2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기존 아이스크림 미니노트북(X120 시리즈) 상판에 리바이스 청바지 디자인과 로고를 넣었으며, 테두리 라인에 리바이스 특유의 붉은 색상을 적용했다.

광주은행 수해 복구자금 지원

광주은행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수해복구를 위한 신규 자금 등 긴급자금을 22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자금은 1차로 총 500억원 한도로 업체당 최고 3억원 범위에서 최고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자금수요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도를 늘려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거래 업체는 분할 상환금 납부를 1년간 유예하고 만기가 되면 기한연장을 통해 피해 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은행 여신정책팀 최영수 팀장은 “광주은행은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상장사 외국인 지분 줄었다

올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지만 광주·전남지역 상장사의 외국인 비중은 오히려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명	'08년말	'09.7.17	증감	주가동향률
금호타이어	24.75	17.95	-6.80	5.68
KPX화인케미칼	15.16	14.72	-0.44	1.33
광주신세계	14.95	11.88	-3.07	23.38
금호산업	5.78	7.40	1.62	0.39
부국철강	6.63	6.53	-0.11	40.91

※ 주가동향률은 작년말 대비, 수정주가 기준

21일 한국거래소 광주 사무소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보유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시가총액 기준)은 전국 평균 30.1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1.4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경우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0.73%포인트 줄어든 3.88%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외국인 비중은 2007년 말 5.26%에서 지난해 말 4.61%, 올해 7월 3.88%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역 상장사들이 규모나 실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주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시가총액 비중이 큰 금호타이어 지분을 올들어 6.8%나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금호타이어로 17.95%를 차지했으며 이어 KPX화인케미칼이 14.72%, 광주신세계 11.88%, 금호산업 7.40%, 부국철강 6.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진 종목은 DSR제강(1.68%포인트)에 이어 금호산업(1.62%포인트), 대유신소재(0.71%포인트), 금호종금(0.08%포인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지분율 하락 상위 5개사는 금호타이어에 이어 광주신세계(-3.07%포인트), 화천기공(-2.72%포인트), 조선내화(-1.61%포인트), 셀렌(-1.23%포인트) 등이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증권사 소액결제서비스
내달 4일로 연기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13개 증권사들의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개시 시점이 다음달 4일로 미뤄졌다.

금융투자협회는 21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 같은 방침을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예정 증권사들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국내의 모든 소액결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광주수원 국민임대

6,8단지 1,942호

·접수 7월 22일(수)~23일(목)

·장소: 주공 지역본부1층

대한주택공사

문의: 062-380-0400-1,0408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우 할 있습니다. 2. 건강합니다. 3. 자존감이 높습니다.

국제보청기

www.guokbocheong.com

본점 (061) 227-9940

송정점 (061)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모두투이 무안출발 백두산 전세기

무안 ↔ 연길 직항 7월 25일 ~ 8월 22일 총 9회 한정상품

반성특가파

7월 28일 백두산 북파·서파·용정·도문 5일

699,000원

8월 1일 - 699,000원

8월 8일 - 699,000원

8월 15일 - 699,000원

8월 22일 - 699,000원

백두산 전세기 지정예약센터 | 1위 허비티엔여행사 | TEL (062) 385-3355 FAX (062) 385-3357